

공기업-민간 '팀코리아' 구성 동반 해외 진출 노린다

공동 실무작업반 구성, 해외 진출 방안 마련키로 태양광-ESS REC 5.0 적용기간 2018년까지 연장

에너지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함께 팀을 이뤄 해외로 진출한다. 공기업은 풍부한 경험, 민간기업은 기술력, 금융기관은 자금력을 바탕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외 진출 활성화와 수출 산업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계, 금융계, 공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효율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상호 협력할 수 있는 '팀 코리아'를 구성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해외 진출을 성사하려면 개별 기업이 도전하기 보다는 팀을 구성해 움직이는 게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성공사례로 꼽히는 일본 홋카이도에 건설하는 28MW 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

우 한전이 발굴하고, LS산전이 건설·운전·보수,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파이낸싱을 담당했다. 산업부는 조만간 '공동 실무작업반'을 별도로 구성해 기업별 추진 사업과 금융기관 파이낸싱 직접 매칭 등을 중심으로 한 '팀 코리아'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프로젝트에는 에너지공기업,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신재생·ESS·AMI 등 제조업체들이 참여한다. 팀 코리아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전은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존의 석탄화력발전과 같은 기저발전을 해외에 수출할 때에는 관련 에너지신산업이 함께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간기업은 지속적으로 기술을 개발해 제품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금융기관은

사업개발 단계부터 참여해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만들고,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추진키로 했다. 산업부는 국내 금융기관 외에 ODA와 같은 국제 원조,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등 국제 금융기구와도 협력한다고 밝혔다. 추가로 신재생, 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 에너지신산업이 패키지 형태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요금제,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우선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ESS 특례요금제는 2020년까지 1년 연장된다. 또 태양광 ESS에 대한 신재생공급인증서(REC) 5.0 적용기간도 2018년까지 1년 연장을 추진한다.

위대용 기자 wee@

▶ 1면서 계속

제4회 전기차 엑스포 팜파르

전시회에서는 전기차 관련 제품 전시와 자율주행·전기차 시연, 신차 발표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자율주행 시연을 성공한 아이오닉 자율주행차와 주행거리와 성능을 개선한 2세대 아이오닉을 국내 최초로 전시할 예정이다. 한국GM도 1회 충전시 383km를 주행할 수 있는 볼트EV를 국내에 처음으로 선보인다. 볼트EV는 올해 중으로 전기차 보급대상 차종에 포함될 예정이다. 대립자동차는 고속형(Zappy, 8월 출시), 저속형(Appeal, 5월), 전기킥보드(Pastel, 5월) 등 올해 판매예정인 전기이륜차를 세계 최초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급·완속 충전기, 농업용 전기차, 전기 버스 등 다양한 신제품도 함께 전시된다. 전시회 기간 동안 열리는 다양한 주제의 컨퍼런스도 눈에 띈다. 한·미·중·남미 등 에너지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국제에너지컨퍼런스에서는 글로벌 시장동향과 R&D 현황을 논의한다. 국제에너지컨퍼런스는 20~21일 오후, 문승일 서울대 교수, 홍준희 가천대 교수, 한병문 명지대 전 부총장, 박지식 에기평

스마트그리드PD, Zechun 칭화대 교수, 최태일 한전 에너지신산업기획처장 김현웅 그리드위즈 소장 등이 참석한다. 컨퍼런스는 기후변화와 스마트그리드, 전기차 수요관리 등을 주제로 열린다. 전기차로 인한 전력시장의 재편,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한 패널토론도 진행된다. 기술·표준·안전·시장 등 전기차를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전기차 국제컨퍼런스'도 함께 열린다. 국내 지자체는 물론 전세계 국가 및 도시의 장이 함께하는 EV 리더스라운드 테이블 등은 엑스포 개막 첫날 성황리에 열

렸다. 한국전기연구원(원장 박경엽, 이하 KERI)은 이번 전시회에서 전기차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핵심부품을 선보인다. '전기자동차 인버터 시스템을 위한 탄화규소 전력반도체'와 희토류계 영구자석을 사용하지 않고 전기차의 수명 향상에 기여하는 '전기차 구동용 권선형 전동기와 비접촉 전원 공급장치', 전선 없이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자기 공진 무선전력전송 기술'을 포함해 총 10종의 최신 연구성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KERI 부스에는 각 바퀴에 모터가 장착된 '직속구동 전기자동차' 개조차량도 선보인다.



INTERVIEW

장 밥티스트 해저드

슈나이더 일렉트릭 동아시아·일본 에코빌딩 부사장



글로벌 에너지 관리·자동화 전문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14~15일 '라이프 이즈 온 이노베이션 서밋'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 자리에는 전력산업과 에너지관리, 정유·석유화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가, 에너지관리·자동화 산업의 글로벌 트렌드와 혁신 방안 등을 공유했다. 특히 슈나이더의 동아시아 스마트 에코빌딩 분야를 총괄하는 장 밥티스트 해저드 동아시아·일본 에코빌딩 부문 부사장이 참석, 여러 전문가들과 빌딩 에너지 관리·자동화 분야 트렌드, 미래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장 밥티스트 해저드 부사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IoT·그린에너지·수명주기관리' 적극 대응"

한국 내 에코엑스퍼트 50여곳 선정, 최고의 가치 실현 <협력업체 인증 프로그램>

"최근 빌딩 에너지관리·자동화 분야 최대 화두는 사물인터넷(IoT)과 그린에너지, 수명주기관리입니다. 이런 '메가트렌드'를 중심으로 관련 제품과 솔루션의 흐름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어요. 슈나이더는 일찍부터 이를 내다보고 준비해 해당 분야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 밥티스트 해저드 부사장은 "빌딩 분야만 따져보면 향후 IoT를 통해 연결된 제품의 숫자는 5년 내 3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스마트 홈 분야만 따지면, 13배 정도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에너지저장장치(ESS), 태양광 등 그린에너지의 에너지원 비중도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건설 비용은 건물 수명 전체에 따졌을 때 25%에 불과하다. 나머지 75%에 달하는 유지보수·운영 비용 절감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슈나이더는 이 같은 3가지 메가트렌드에 적극 대응해나가고 있습니다. IoT를 통해 연결된 센서와 미터, 밸브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각각 또는 통합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선보이고 있어요. 이 같은 노력을 담은 신제품 3종과 플랫폼을 이번 행사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 슈나이더는 연결성에 초점을 맞춘 'Gisela' 센서와 'PMA5000' 미터, 'Pibcv' 밸브 등 3가지 제품을 새롭게 출시했다. Gisela는 사람이 움직이지 않아도 감지할 수 있는 재실감 지용 센서로, 10m 정도의 먼 거리까지 감지할 수 있다. 특히 천장에 '버섯'처럼 드러내지 않아도 동작하기 때문에 호텔 등 미관이 중요한 곳에 최적화돼 있다. PMA5000 미터는 듀얼 포트 IP 주소를 2개 받을 수 있으며, Pibcv 밸브는 별도의 밸런싱 밸브 없이 복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복합 밸브다. 슈나이더는 이와 함께 이들 제품을 개별적으로, 혹은 통합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차세대 플랫폼 '에코스트럭처

(Ecostruxure)'도 새롭게 선보였다. "센서와 미터, 밸브를 IoT로 연결해 제어단에 접속하고 최상위 단의 분석 툴이나 소프트웨어로 데이터를 전달해 사용자에게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고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각각의 제품과 플랫폼은 수평적으로, 그리고 수직적으로 계속해서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빌딩관리시스템(BMS), 조명제어, 파워솔루션 등의 아키텍처를 각각, 혹은 통합 제어할 수 있어요. 레드 로프트나 제품의 업그레이드, 확장도 자유자재로 가능합니다. 이들 신제품으로 메가트렌드에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예요." 해저드 부사장은 고객에게 최적의 에코빌딩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파트너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고객들에게 검증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파트너 프로그램 '에코엑스퍼트(Ecoexpert)'를 한국 시장에서도 운영하게 됐습니다. 에코엑스퍼트는 슈나이더의 솔루션을 디자인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공식적으로 검증받은 시스템통합(SI) 협력업체 들을 인증하는 프로그램이예요. BMS, 조명제어, 통합배선, 커넥티드 파워(Connected Power), 크리티컬 파워(Critical Power) 등 5개 영역에 대해 각각 인증서가 제공되죠. 세계적으로 3000여개의 에코엑스퍼트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번에 50곳 정도를 에코엑스퍼트 선정하고, 제품과 솔루션에 대한 트레이닝을 진행했어요. 한국의 에코엑스퍼트는 각각의 분야에서 최적의 에너지관리·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해나갈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저드 부사장은 "BMS와 전력솔루션, 조명제어, 통합배선 등 기계·전기·IT 분야를 IoT로 통합해 최고의 에코빌딩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며 "에코엑스퍼트 파트너들과 함께 최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강조했다.

김병일 기자 kube@

2017년도 지중배전전공 양성 및 기능향상 교육생 모집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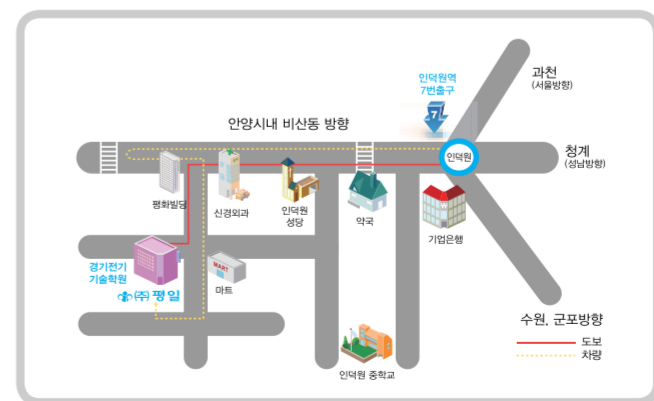
2017년도 수강신청은 아래의 교육과정 및 일정을 선택하시어 담당자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과정 | 차수 | 교육기간 | 교육비(원) (정액) | 지원자격 | 비고 |
|--------------------|---------------|---------------|-----------------|--------------------|---------------------|
| 지중배전전공 양성교육 (119일) | 4 | 04.03 - 04.14 | 1,890,000 (20%) | 원 17개이상 ~ 원 43세 미만 | 18~3차 교육은 미완료된 습니다. |
| | 5 | 05.01 - 05.12 | | | |
| | 6 | 06.06 - 06.17 | | | |
| | 7 | 07.10 - 07.21 | | | |
| | 8 | 08.04 - 08.15 | | | |
| | 9 | 10.09 - 10.20 | | | |
| | 2 | 03.28 - 04.01 | | | |
| 3 | 04.24 - 04.28 | | | | |
| 4 | 05.22 - 06.26 | | | | |
| 5 | 07.03 - 07.07 | | | | |
| 6 | 07.25 - 07.29 | | | | |
| 7 | 09.25 - 09.29 | | | | |

☎(주) 평일 찾아오시는 길

전철 이용 시
4호선 인덕원역 하차 7번출구이용, 안양시내방향으로 300m 도보 진행 김형근 예방원에서 좌측골목(인덕원역에서 5분거리)

차량 이용 시
인덕원사거리에서 안양시내 방향 진행, 두번째 횡단보도에서 우회하여 100m 진행 후 평화빌딩에서 우회전, 두번째 사거리에서 우회전, 20m 진행 후 우회전, 평일빌딩 주차장 이용



▶입교시 준비물

- 입교시간 오전 8:40
- 훈련위탁계약서 원본 1부
- 주민등록증(평가시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절연화 또는 안전화, 작업복
- 채용신체검사서 원본 1부 (혈압, 색맹포함)
- 지중배전전공자격증(기능향상교육신청자)

▶담당자

송지현 사원
(010-6876-3047 / wgw7856@pyungil.com)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34번길 9-30, 2층

▶홈페이지

http://getti.pyungil.com(양식 다운로드)

▶계좌번호 안내

농협, 301-0065-4680-11, 경기전기기술학원

※ 양성교육은 11차 / 기능향상교육은 10차까지 예정되어있습니다.



경기전기기술학원